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어췌어 응답해 드립니다. 성의 고백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음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030 서울시 중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 FAX: (031)470-3116



대행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585호 현대불교
서기 2006년 7월 5일(음력 6월 10일) 수요일
법공양 페이지

29

여러분께서 비가 오는데도, 자리가 부족함에도 무뎠고 이렇게 같이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몸을 벗기 전에 필연적으로 알아둬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이 때로는 착잡하기도 하지만, 착잡한 것을 생각지 말라 해도 아니 되고 생각해야 해도 아니 되는 것이죠.

그런 왜냐하면 길을 지나가다보면 별래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동시에 그것을 감지해본다면, 기뻐 데가 있으면 좀 멀하고 기뻐 데가 없으면 아주 역력히 자기 살 궁리를 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홀출단신으로 모든 것을 집착하지 않고 일어선다는 것은 참 어려운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점을 감안해서 귀도 떠야 하고 눈도 밝아야 하고, 폭도 넓혀야 하고 하니가 됩니다. 간단히 생각해보면 우리 머리 위에다 세계가 있고, 우리 발밑에도 세계가 있고, 사방팔방에 세계가 있습니다. 전체 '대천(大千)' 하면 벌써 그렇게 있다는 말이고, '대천' 하면 그런 세계가 헤아릴 수 없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요만한 한 지구의 우물에서 '우리가 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뎨 참으로 답답한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답답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우물에서만 자기 집이라고 하고, 자기 거라고 하고, 자기가 했다고 하고, 서로 뺏고 빼앗기고 하는 싸움을 계속 하는 그런 정신계의 문제와 육신계의 물질세계와 이 모두가 전쟁 아닌 전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새도 보십시오. 전쟁 아닌! 내가 생각할 때는 거저 쥐도 싫다고 할 텐데 말입니다. 허허허. 돈을 갖다 주고 하라고 그러도 싫다고 할 텐데 말입니다. 이 문제들이 모두 겹면에 탐착을 해서 그런 거죠. 그것도 과한 욕심 이죠. 진짜 욕심을 부리려면 우주세계 천차만별을 다 집어먹으려고 해야지 그것이 당연하겠죠. 영원치도 않은 걸 가지고 싸우긴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고통동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하지않게 생을 버리다니 그런 말도 안 됩니다.

세계가 그렇게 많고 그런데 여러분은 부처님께서 연기법(緣起法)이라고 하신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전기가 전력이 있으니까 이게 돌아가고 이렇게 불이 들어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데에서 연기법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연기법이 있는 겁니다. 켜겠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 분명히 아시죠. 그런데 전력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보지 못하시죠. 그것도 이름해서 연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연기법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연들이 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스님, 지금 병원에서 죽어갑니다. 애를 낳고 하혈을 합니다." 이렇게 해도 여러분은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시겠지만 부처님께서는 응신(應身)으로 화(化)해서 거기까지 같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같이 해주는 것은 모르되 내가 하혈이 멎어진 것은 알게끔요. 그러니 그것 또한 연기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연에 따라서, 일체 만물 만생이 다 연에 따라서 돌아가기 때문에 모두가 직결이 돼 있고 가설이 돼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겁니다.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스위치만 누르면 즉발 전기가 들어오듯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방편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방편이 없어도 아니 되고 방편이 있어도 아니 되는 그 가운데 모두 여러분이 각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아휴! 나를 찾으러니까 힘들고 주인공에다 놓으려도 잘 놔지지를 알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까닭이냐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공자를 심었는데 그 공자가 바로 씩으로 화해 버렸는데 공자를 과거로 돌아가서 찾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말쑥 해드리는 게 맞습니까? 공자는 씩이 되려면, 인간이 정자 난자에 의해서 씩이 나듯이, 생산이 되듯이 그것도 수분과 흙과 그렇게 있어야 생산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생산이 됐으면, 씩이 나왔으면 태양열도 필요하고 거름도 필요하고 모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김 매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듯이 여러분이 공짜이 공씨를 찾을 때에는 반드시 그 공씨

에 공씨가 또 열렸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공씨는 과거 공씨가 현실의 씩에 공씨로 또 그렇게 연방 고리가 고리를 틀고 있듯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지나갔으니가 없다'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이 공씨으로 화했으니가 지나갔죠? 풍 시대는 지나갔단 말입니다. 이제 짝 시대죠. 짝 시대에서 씩에 공씨가 또 붙었으니 자기 조상과 그 화한 씩과는 틀이 아니라 얘깁니다. 씩이 없어서도 풍이 없고 풍이 없어도 씩이 없으니 이 노릇을 어떻게 하느냐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 씩과 풍과 틀이 아닐진대 어찌 씩이 풍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풍은 씩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틀이 아닌 까닭에 그렇게 서로 이끌고 있

공씨는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바로 공씨와 공씨과 더불어 같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씨는 움직여지지 않아도 그 능력은 배출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공씨에 배려할 수도 있고요. 그런 자동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작용 자체가 바로 자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현실 그대로가 여여한 부처님의 법이자 우리들의 법입니다. 어떻게 지금 뛰고 생각하고 하는 세상에, 어떻게 멀리 가서 물어보고 와서 하겠습니까? 종교를 믿으면 어디에 귀의하고 무엇을 믿습니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것과 시시각각으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대처를 다 해나갈 수 있겠

기버리고 그만인 거를 항상 똑같이 해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여하게 두루 걸림 없이

찰나찰나 나투며 와지끈 탕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에 누구한테 물어야 합니까? 제삼자가 대신 해결까요? 자기가, 자기 몸뚱이가 남한테 보였으니까, 그대로 자기가 있으니까 딱쳐오는 겁니다. 그게, 자기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무효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있기 때문에 상대성 원리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공씨를 자기 안에 두고, 남한테 만날 비력질을 하는 거죠. 자기 보배를 자기 안에 두고도 말입니다. 그 보배란 어떤 것이냐? 불기등과 같고, 자기 몸뚱이는 수레와 같아요. 이 세상에 모든 차나 어떠한 물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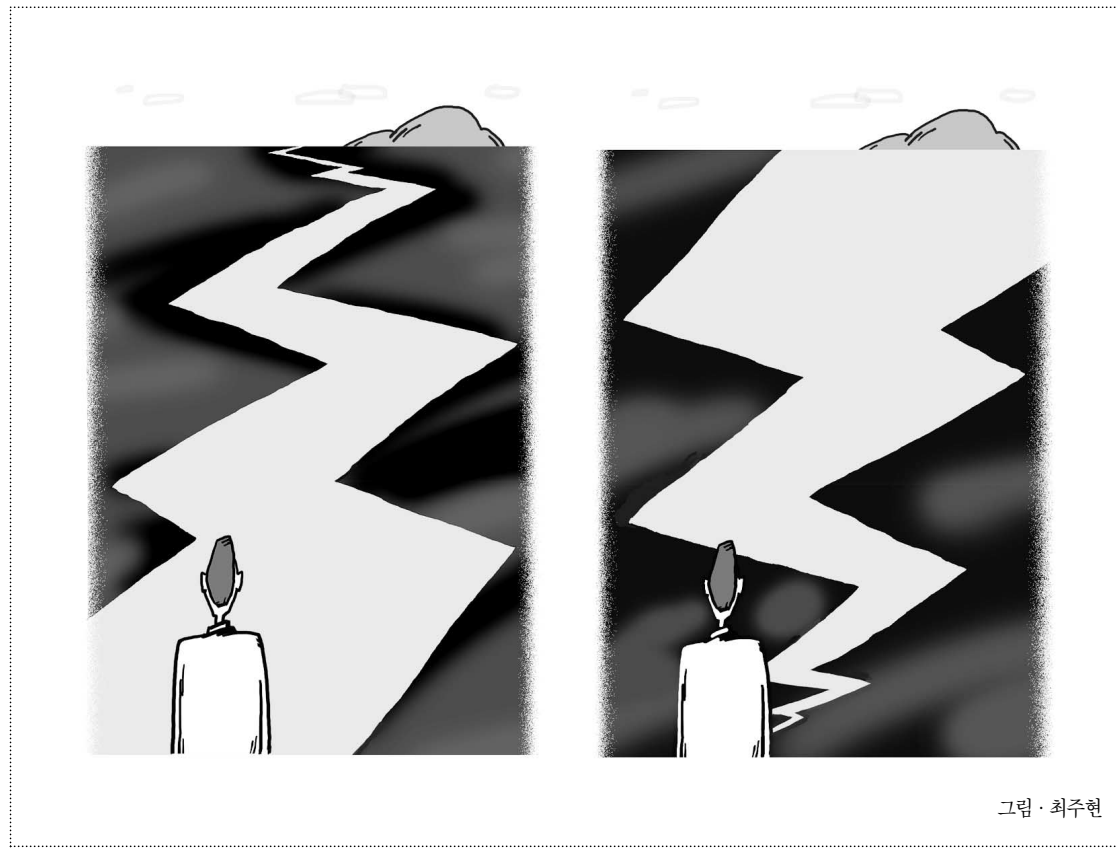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습니까. 누가 이끌어서 맡아라 해서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묵은 뿌리가 있습니다. 풍 묵은 뿌리 말입니다! 공씨가 육의 부모라고 한다면 공씨는 법의 부모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넓혀야 할 것이 무엇인가? 넓히기만 하는 것이 부처님 법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넓게 알았으면 좁힐 줄도 알아야 한다. 좁힐 줄 안다면 넓힐 줄도 알아야 한다. 이 넓히고 좁히고 하는 생활의 작용을 어떻게 누구가 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다 제라기 자기가 있으니까 작용을 하죠? 자기가 없다면 누가 대신 해주겠습니까? 여러분은 불교를 믿으면서 일하는 거 따로 불교 믿는 거 따로 계산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일거수일투족이 틀이 아닌 까닭에, 전부 자기가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자기로 인해서 그

습니까? 나 아닌 타의를 믿는다면 그냥 어떤 큰 일이 벌어졌을 때 같이 가다가도, 그럼 부처님한테 법당에 와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벌써 일은 당하고 난 뒤에 부처님한테 와서 그 일을 그렇게 담당하고 할 겁니까? 아, 생각을 해보세요. 안 그런가, 그런가? 즉시 즉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이러한 방편의 이름이 있습니다. '와지끈 탕탕'이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거는 말로 할 수가 없느냐면 여러분이 그릇이 작으면 나도 작아지고 여러분이 커지면 나도 커지고 똑같이 그렇게 가져거든요. 그 뜻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릇이 요만한하면 나도 요만한 수밖에 없지, 요만한 데다 드림통으로 끌어부어 봤자야. 다 나

든지 중심 없이 바뀌어 돌아가는 거 보셨습니까? 그 중심은 바로 심봉과 같고 자기 보배와 같아서 움직여지지 않으면서도 그 능력을 배출할 수 있는, 배려해줄 수 있는 그것을 다 갖추고 있던 얘깁니다. 왜냐하면 심봉이기 때문에 바뀌어 거기 켜어져 있거든요. 이 지구도 중심이 없다면 여여하게 그렇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중심이 있기 때문에 기울어지지 않고, 움직여지지 않으면서도 움직여지게 돼 있습니다.

아까 연기법이라고 얘기했죠? 그것도 한 개의 이름이지 진실한 실천이 바로 문제입니다. 길에 오다 가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보이지 않는 거서 대처를 할 수 있어야만이 보이는 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남이 볼 때에 아, 저 사람은 모습은 저렇게 그냥 했어도 자기 몸이 수월하게 빠질 수 있고 여여하게 갈 수 있게끔 될 때 그걸 우연

이라고 하겠습니까? 자기가 우연이라고 하겠느냐고요.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대처했고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도 당했지, 그 우연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자기의 보배로 하여금 보이는 데로 나온 것입니까. 그것도 이름해서 하나의 연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지구 안에서 이렇게 오뎨뎨뎨뎨 살면서, 별래 하나 버리지 않고 살면서 그 바깥으로는 못 나가시죠? 지구 바깥으로 안 되시죠? 허허허. 그래서 말입니다. 항상 난 그런 말을 잘 해요. 그 지구가 버스라면 대형 버스라면, 그 대형 버스 안에 우리가 들어서 서로 싸우고 그냥 수라장이 돼가지고 사는 겁니다. '아리나, 그러나? 옳으나, 그르나?' 하고 온통 그냥 벌어먹기 위해서 안하무인으로 남을 밟고 남을 올라타고 또 올라타면 위에서 그냥 내리밟고 이렇게 해서 중간에서 그냥 힘이 들고, 살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힘이 너무 들기 때문에 허허미를 즐겼던 것입니까. 우리 중세에서 사는 사람들은 허허미를 안 맨 사람이 별로 없습니까. 그런데 버스 안에서 살면서 이 버스가 돌아간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어디로 돌아가고 돌아오는지 제자리걸음을 하는지 그걸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돌아서 오는지 어디로 돌아가는지 생각해보셨습니까? 그것도 또한 돌아가고 돌아온다는 거는 아는데 어디로 어떻게 해서 돌아오는 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도 또한 이름해서 연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사실은 모르는 게 아닌데도 그냥 이름만 그렇게 돌아온다더라 그렇게 돌아간다더라 이런 것만 알지 내다보지라도 했습니까? 그래 여러분이 우물 안에서 놀기보다는 좀더 우주세계를 내다 볼 수 있고, 우주세계를 들을 수 있고, 과거세계와 미래세계를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인생살이를 할까. 얼마나 자유인으로서 살 수 있을까. 밥을 굶는다 하더라도 허허, 하늘을 쳐다보고 웃을 수 있는 진짜 그런 자유인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어느 누구도 나 아님이 없기 때문에 공양을 바치는 사람이 그냥 갖다줘도, 거지가 얻어다줘도, 어느 누구도 인연에 따라서 밥을 굶어서 배에서 쪼록 소리 나게끔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즉 자유인의 삶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오는 대로 배가 부르게 그냥 그저 자기 몸뚱이가 어떻게 되든지 먹기만 하는데 그게 아니죠. 자기가 공덕이 많아서, 배를 여겨서 그만큼 들어온다 하더라도 먹는 거를 또 제재해서 아주 알맞게 먹어야 되겠죠. 목적지를 가려면 알맞게 신고 가야지 운전자 머리 위에도 그냥 잔뜩 심는다면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듯이, 우리 삶이 바로 이런 것에서 모두 벌어지는 문제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 세상의 보물을 다 주워 모아서 너를 즐네니 너 이걸 가지려느냐. 근번 금강석 같은 보배를 가지려느냐 한다면 어떤 거를 가지시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잘살고 잘 먹고 부자로 으스스대고 잘 살아보기 위해서는 아마 그거를 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한철인 걸요. 한철요. 욕심 많은 사람은 한철 그까짓 거 가지고 눈에 뜨이지도 않습니다. 한철 지나면 그냥 다 없어질 것을, 자기 몸뚱이까지도 없어질 것을 왜 그걸 택하겠습니까? 그러나 영원히 내가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먹을 수 있고, 영원히 즐 수 있고, 영원히 갖출 수 있고, 영원히 자유스러울 수 있고 그런 길을 택하지, 고작 한철 잘 먹고 잘 지낼 거를 택하겠습니까?

지금 전세계로 다 돌아다녀보니까 전부 타의에서 구하고 기도를 해요. 정말 기도 소리라는 게, 너무도 기도라는 것에 실망을 해서요. 너무도 정 말이지 기가 막힌 탄식이 나오더라고요. 때로는 영계성이다 때로는 뭐 그것들을 하나 붙들고 영계성의 연구를 하질 않나, 또 그렇지 않으면 철학이라고 하는 거를 붙들고 늘어지질 않나. 이것은 이것저것 하나만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바깥으로 말이에요.

30면으로 계속

여여하게 두루 걸림없이
찰나찰나 나투며 '와지끈 탕탕!'

이 안의 내 보물은
우주 삼천대천 세계를 펜 심봉

진실한 실천이 바로 문제!

이 뛰는 것만 가지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일체 만법, 여러분이 끌리고 작용하고 돌아가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사람이 살다보면 극한 문제가 있어서 안에도 굴리지 않는다면은 분기가 나서 분대로 막 말을 해버립니다. 말을 해버리면 그 말을 다시 주워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 굴러다 보면 "주인공! 너만 이 그렇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아!" 할 때에 벌써 마음은 가라앉아서 순서 없는 말을 내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아무렇게나 그냥 자기 생각 대로, 그냥 나오는 대로 막 말을 해버리는데 그렇게 한다면 안 됩니다. 항상 나를, 내 키에 재지 말고 내 그릇에 재지 말고 상대방의 그릇에 따라서 대처를 해나가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상 잣대를 내 키에 다 재면, 내 방식대로 내 그릇대로 상대방을 생각한다면 항상 모가 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그

도 그냥 "이 새끼 돈 내놔!" 하고는 그냥 때리거든요. 내가 내려다보다가 아, 참 기가 막혀요. 세상 사는 게 저렇게 살고 저렇게 하다보면 우리는 불국토를 가져오기는커녕 악다구니 마구니 종자만 생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심스러워서 그거를 좀 내가 돼줬죠. 부처님이 되게끔, 부처님 법신(法身)이 되게끔 했던 얘깁니다.

그랬더니 어디서 난데없이 노인 죽어도 안 가는 한 사십 먹은 분이 쳐 오더니 "왜들 이래?" 돈이 없어서 못 주지 않으면 주지 않겠나? 누군들 다 그렇지, 너도 돈 없애봐라." 하면서 그냥 탁 헤어지게 하니까 다 순순히 말을 듣고선 가더라고요. 가고 나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어, 그러게 그래. 어머니가 아파서 그거 그렇게 했어? 어디서 사는데?" 뭐 그런 걸 다 적어가지고 가져다고요. 틀림없이 취직을 시켰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하하. (대중 박수)

이것이 우리가 그냥 우연이고 보통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 일 같지만, 그 하나 하나가 빠져린 문제입니다. 인생이 살아나가는 데 얼마나 빠져린 문제들이 다 가지고 얼마나 빠져린 문제들이 안에서 일어나는지 여러분은 잘

해주시더군요. "스님,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정말 그러하다." 하면서 "정말 그 도리를 가르쳐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 말합니다. 그리고 율기까지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당신이 그렇게 즐겁고 잘 믿고 가면 동시에 어디가 좋으냐 하면은 조상도 좋고 자녀들한테도 좋으니까 그 즐거운 눈물은 아껴두라고요. 그래서 이 도리를 꼭 믿고 가야 되고 실천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을 할 줄을 몰라서 지금 그러는 데요. 이 조상이 잘해나갔으면 자식도 잘해나갑니다. 그런데 조상이 잘못했으면 자식도 거기 한 줄에 꿰어 있기 때문에 잘 안됩니다. 그 업보가 같이같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또 자식이 잘하면은 부모가 연결이 돼서, 조상들이 잘 천도가 되고 또 활용을 해서 이 세상에 보람 있게 나와서 잘 관안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을 이끌어가지마는, 그렇지 못하면 이런 게 있죠. 자식들이 잘못해 놓으면 부모가 회사 경영이라든가 정치라든가 이런 거 하는 데에 많이 연결되죠. 몹쓸 일을 했다면 아이고, 모가지까지도 날아갈 수가 있죠. 부모가 잘못해도 자식이 그렇고 자식이 잘못해도 부모가 그렇습니다.

이 도리에서 보면 대대로 그렇습니다. 대대로 말합니다. 그게 유전성입니다. 인과로 인해서 유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전성 세균성 업보성이 되는 거죠. 인과성 연계성, 이 문제가 어떻게 오느냐? 나는 현실에 정신분열증을 앓는 사람을 많이 볼 때 '어허, 저것은 아무 때 문에 이렇게 이렇게 살생을 어떻게 어떻게 저질렀구나. 하나만이 아니라 수많은 것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식들마다 저렇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는 자기 자신과 식구들이 한테 합쳐서 지금 녹음이 되고 입력이 돼서 팔자 운명대로 나오는 것을 되 거기가 떨어져서 그 입력을 없애는 공부를 하시라 이겁니다. 그거는 그 자리에서 나온 자리로 다시 입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 업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대손손으로 내려갑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니까. 그게, 영계성이든지 유전성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없애려면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것을, 되 그 자리에서 다 맡겨놔야 앞서 입력된 게 없어질 거 아니니까? 이렇게 말하는 데도 모르시겠습니까? 아시겠죠?

대중: 예.(대중 웃음)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4년 6월 18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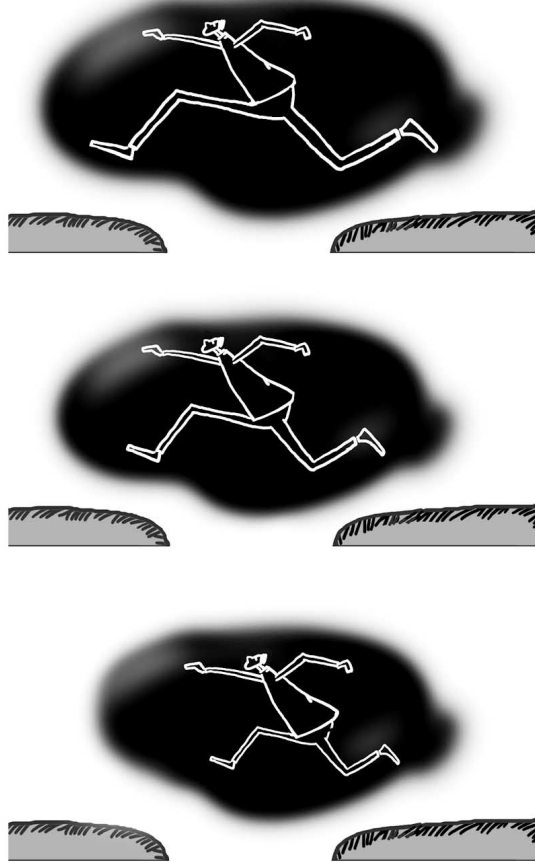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29면에서 계속

이 안의 내 보름은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켜 바로 기둥이란 말합니다. 그러면은 기둥은 움직 거리지 않으면서도 그 수많은 세계를 다 대쳐하고 배려하고, 그 능력이 자동적으로 배출된다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기둥이 하나 붙은 그 수레가 수억 개로, 수만억으로 돼 있고, 보살이 수십억으로 돼 있던 얘깁니다. 보살은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거기에겐 철학도 붙어 있고, 의학도 붙어 있고, 과학도 붙어 있고, 천문학도 붙어 있고, 하하하. 이게 모두가 여기에 다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모조리 요거 하나만 연구해서 내가 알 캐지한다면, 예를 들자면 콩깍데기가 콩이 자기한테 달려 있다는 것을 알면 진짜로 믿어질 겁니다. 자기 중심에 자기 몸뚱이가 있는 거지, 자기 몸뚱

이가 없으면 중심도 없고, 중심이 없으면 몸뚱이도 없는 건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장마가 들었는데 개천을 건너리니까 어디를 뛰어아나 잘 건너질 수 있을까 하고 위도 보고 아래도 보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뛰어가서 무조건 넘어뜨리든지, 빠질 거든지 안 빠질 거든지 그냥 뛺니까? 안 그러죠? 부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상세계를 보고 하세계를 보고 중도(中道)를 지켜라, 중도를 지키으로써 중용을 하게 된다. 중용을 하게 됴으로써 모두가 종자를 제대로 찾을 수 있고, 제대로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무조건 뛰어가서 건너질 말고, 아래 위를 봐서 잘 생각해서 내가 뛰어야 한다 하는 것을 안애다 (가슴을 짚어 보시며) 굴러서, 안애다 굴리고 잘 보고 안애다 굴러서 뛰어라 이겁니다.

현실 그대로가 여여한 부처님의 법이자 우리들의 법입니다

뜻에 따라서 나도 그 그릇이 돼준다면 항상 등근 겁니다. 등글어요. 세상에 나서 얼마나 이 몸을 가지고 살려고 그렇게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을 섬실하게 하고, 남을 이기지 못하게 하고, 앙심을 먹게 하고 그럼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나한테는 무슨 이득이 있느냐 하시겠지만 만물이 다 한마음이 돼서, 내 한마음이 돼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데, 예를 들어서 얘깁니다. 길에 가다가 물때를 맞게 왔는데 그냥 내 한마음 식구가 모두 우르르로 달려 나옵니다. 그 마을과 마음이 전달이 돼서 모습이 없는 모습들이 달려 나오는 거죠. 달려와서 '아이쿠, 내 몸 죽인다!' 하곤 내 몸 살리느라고 그냥 모두 살리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개운하고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말로는 행운할 수 없는 이 자기 보배의 맛을 모르면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 안양열 가다가 보니까 싸움이 났는데 무슨 싸움인가 하고 이렇게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거지 털을 쓴 아주 웃이 남무한 청년인데, 청년 다섯이 그냥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 죽는데도, "돈이 없어서 못 주지 않으면 주지 않겠나? 지금 우리 어머니가 병환이 나서도 내가 그 돈을 못 주고 있지 않아." 하는데

이화 청기와 공장

●KS S형 청기와
장당 3,500원 도착 (하차별도)

●한식 검정 시멘트기와
장당 1,500원 도착 (하차별도)

문의 041)554-0112(천안)
011-9820-0112(직)

퇴행성관절염·류마티스 신경통·오십견·디스크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환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신환(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거나 뼈가 기형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윤량한의원 의 윤량원장은 수십년 동안 퇴행성관절염·류마티스·신경통·오십견·디스크 등의 환자와 전쟁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환(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 결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신환(丸)을 5~7일만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어떤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환약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관신환을 드실 분

- 케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무리가 오시는 분
-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 류마티스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위계양때문에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는 분
-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하신 분
-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픈 분

윤량한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남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부처님의 가르치, 불자님의 가정에 더 큰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백년가약 사랑스런 자녀의 혼인을 현에서...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 함양

위치안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 대추, 초,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
함미혼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분에게는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법명: 無生子)

사무실: 02)2677-5442
소연구원: 032)345-5411
휴대폰: 011)288-2944

현대결혼연구원

간(肝)이 건강을 지킵니다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다슬기과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더한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로 단위로 포장됩니다.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향이리에 넣고 원거 9기마니를 덮은 뒤 원거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향이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 데 원거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일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055) 963-9583 · 상담문의: (055) 355-5626
신미를 토종 (민속농원)